

한국건강관리협회, 북한 어린이 집단 구충 사업 지원

한민족복지재단 · 동아일보사 공동 추진

통일의 주역 '질병해방'에 새 장 열어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한민족복지재단(이사장 이상희)과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펼치는 '북한 어린이 집단 구충 사업'에 구충제 등을 지원해 북한에 대한 민간 차원의 보건 의료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인천~남포항을 거쳐 북측에 전달된 알벤탈 250만 정(알벤탈) 등 22억6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은 북한 조선의약협회를 통해 평양 제1인민병원 등에 공급되어 13세 미만의 북한 어린이 250만 명 대상의 구충 사업에 사용된다.

구충 사업은 어린이의 성장과 영양 공급에 직결되는 문제로, 세계보건기구의 9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의 15.6%는 극심한 영양 실조이고, 61.3%는 만성적인 영양 실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영양 실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생충 감염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간디스토마는 간경화를 유발하고, 일반 기생충은 빈혈과 영양결핍으로 연결되며, 외충은 장 파열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구충 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구충사업은 또한 지속성이 매우 중요한데, 기생충 감염의 경우 대체로 5년 정도의 관리를 거치면 치유가 가능하므로 일회성 지원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0

한국건강관리협회 윤정하 총무기획국장은 "약품만 1회성으로 지원할 경우 재감염의 우려가 있다"면서, "협회는 향후 5년간 약품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측이 스스로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앞으로 10만명분의 약품과 검사 장비 등을 한민족재단과 동아일보에 지원하여 대북 구충 사업이 향후 5년간 지속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대북 보건 의료 지원 사업은 이번 구충 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8월부터는 북한 어린이 급식 및 구호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각 도청 소재지에 병원을 건립하는 등 활발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에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한민족복지재단은 밝혔다. [Z]



▲ 한민족복지재단과 동아일보가 함께 벌인 '북한 어린이 집단 구충 사업'을 돕기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지난 7월 25일 인천 연안부두에서 구충제와 일회용 주사기 등 의약품을 전달하고 있다.